

과학 기술인 : ‘노블리스 오블리제’

류재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즘은 '과학기술 중심사회'라는 화두때문인지 과학기술 진흥과 중요성에 대한 제안이나 과학기술 정책, 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제안이나 비판은 많은 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시작되려는 마당에서 일선 과학자인 필자를 포함하여 과학기술계의 주요 구성원이고 실수요자인 일선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없는지에 국한하여 잠시 되돌아보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과 그 중심에 서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행정기들의 과학정책 그리고 과학자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나폴레옹은 여러 곳을 원정 다닐 때마다 어김없이 수많은 과학자들을 대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지방에 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10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인구대책 및 식량대책 등을 제시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가깝게는 일상생활에서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으로, 길게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으로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는 현 주소는 어떠한

가. 통·폐합 등 일선연구 현장을 이해 못하는 잦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본연의 연구 활동을 오래전에 떠난 과학행정가(?)들에 의해 파생되는 제목만 바뀌는 연구사업이나 옥상옥의 행정기관, 단위 연구기관에서조차도 분할과 통합에의 자화상들과 거기에 쏟아붓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학연·지연의 연고주의, 과학기술정책이나 공정한 인사와 평가를 위한 투명성과 객관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노력보다는 그러한 요구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불이익에 연연해하는 현실적인 우리의 면면을 보게 된다.

과학이란 '합리성'과 '객관성'의 보편적 가치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를 공부한 과학기술자이니 만큼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장 높은 '선'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합리성과 보편성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학자적 양식과 권위 사이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에는 미흡한 채 학자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자리매김 '점잖음'이란 포장 뒤에서 한숨만 쉬 적은 없는지? 비록 현실 때문이라 할지라

“대접받고자 할 때 대접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 스스로가 나서서 고치고 개선시켜야 한다. 이제는 과학기술인들의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 연구비, 전공, 소속기관만을 위한 아집적인 행동들은 없었는지? 연구기획이나 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공정했는지? 조그만 학회에서조차도 학회를 이끌어온 공과보다는 특정출신 인맥 위주의 임원선출 및 운영 등의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학문으로 평가되어야 할 집단에서 일어나는 권위주의적인 행동은 없었는지? 신지식인이라 패러다임이 사회를 주도할 때에도 '신지식인'이란 정의에 일침조차 가하지 못했던 '구(?) 지식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니었던지? 정책이 잘못되어서... 국가 R&D 예산이 적어서... 평가가 잘못되어서... 등 자조(自嘲)의 세월 속에서 우리 스스로 '김포공항 신드롬'을, 그게 현실 유언하며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제 과학기술자들도 연구 활동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스스로가 다짐하고 펼쳐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당당한 주체로서 미래 후학들의 발전을 위한 '의무(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과 시스템이 필요한 때

'과학기술 정책의 강화'라는 슬로건보다는 '과학기술 정책의 합리화'를 추구했으면 한다. 예산증액만을 거론하기에 앞서, 과학기술분야에 배정된 예산만이라도 거시적이고 타당한 분야에 투자되도록 하며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참여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공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일선 연구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대부분 과학기술자들의 소박한 희망은 연구비, 인사평가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분보장이나 연금제도의 시행이다. 거창한 과학기술정책보다도 이런 것들의 해결이야말로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신

바람 나는 연구 분위기 정착을 위한 1순위다. 평가, 인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각도에서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일선 연구자들에게 보다 넓혀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연구 분위기 활성화는 의외로 손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There is no great genius without some touch of madness', 즉 무엇에 미치지 않고서는 위대한 천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획일화된 기존의 잣대와 변하지 않는 시선보다는, 미친 것 같아 보이더라도 보다 넓은 사고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degree of freedom을 넓혀 주는 게 시급하다. 나아가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공정한 평가와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제는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관행개는 실천보여야

세계는 현재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인의 사고와 행동 및 정책 등의 변화 없이는 외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대접받고자 할 때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이루어진 과학기술계의 관행과 타성과 아집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자 스스로가 나서서 고치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과학적 사고' 없이는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중심축이 되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운 단순 '지식'만의 소유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